

성읍민속로 | 성읍민속마을

제주시에서 번영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 보면 **성읍민속로**를 만나게 된다. 이 길은 국가지정 민속마을인 성읍민속마을을 의미하는 길이다. 성읍리는 예전에 진사리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 정의현성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정의골 또는 성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전해오는 제주의 풍습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초가집이다. 이곳에서는 200년 전에 지었다는 초가집을 비롯해 많은 초가집들이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역새를 이용해 지붕을 올린 제주의 초가집은 건물 수에 따라 외거리, 두거리, 세거리, 네거리 집으로 구분한다. 옛날 제주에서는 부모 자식이 한 담장 안에 살면서도 안거리와 밖거리에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했다. 부엌을 따로 쓰는 것은 물론 밥도 따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오늘날 제주에서도 초가집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지만 성읍민속마을만큼은 옛 초가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읍민속마을에는 이 밖에도 인분으로 돼지를 키우던 화장실인 통시와 집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던 정낭, 바람을 막기 위한 돌담, 정의현청을 보호하던 성벽, 정의현의 교육을 담당하던 정의향교, 그리고 성문을 지키던 수호신인 돌하르방 등 다양한 제주의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성읍민속마을

성읍정의현로 / 성읍서문로 | 정의현

성읍민속로에서 갈라져 나온 **성읍정의현로**는 조선시대 제주의 3대 행정 기관 중 하나인 정의현청이 있었던 곳을 의미한다. 성산읍의 고성리 인근에 있던 현청이 성읍으로 옮겨진 이래 500여 년 동안 이곳은 제주도 동쪽 지역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성읍정의현로는 정의현성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성 북쪽에는 정의현감이 업무를 보던 일관현이, 중앙에는 다른 지방에서 정의현을 찾아온 손님이 머물던 객사터가 복원되어 있고, 남문 쪽에는 원님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원님물통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현이 폐지되자 일관현은 면사무소와 리사무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최근까지 일관현에는 오래된 팽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강력한 태풍에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정의현성 안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인 **성읍서문로**는 성읍리 서쪽에서 마을로 들어오면서 서문을 통과하는 길이다. 길 주변에는 정의현의 서문과 정의현 객사, 정의향교, 법성사 등이 있다. 정의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 관립 학교로 제주의 각 현에 설치되었던 세 개의 향교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정의현청과 같이 고성리 인근에 세워졌다가 정의현청의 위치를 옮기면서 향교도 성읍으로 옮겨졌다. 정의향교는 동쪽 지역 유생들의 학문을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제주향교에 통합되기도 했었던 정의향교는 광복 후에 본래의 위치를 되찾고 오늘날까지 향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성일로 | 영주산

성읍리의 북쪽 성읍정의현로에서 시작하는 **서성일로**는 성읍리를 관통하여 성산읍 고성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 인근에는 영주산이라 불리는 오름이 있다. 영주라는 이름은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 방장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이다. 한라산을 별칭으로 영주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주산에는 무선돌에 얽힌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한 마을에 부잣집 처녀와 홀어머니를



영주산

모시고 사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총각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 부잣집 처녀와 마주쳤다.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가다가도 처녀를 만나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곤 했다. 그러다보니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소홀하게 되었고, 총각의 어머니는 쓸쓸히 돌아가시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을 불효자로 여겨 좋지 않게 보았다. 그러던 중에 총각과 처녀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처녀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처녀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다. 총각과 처녀는 결국 함께 살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순간 하늘에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처녀는 영주산으로 변하고, 총각은 무선돌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영주산은 화창한 날에는 한라산에서부터 성산일출봉까지 제주도 동쪽 지역의 오름들을 조망할 수 있어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오름이다.

영주산은 화창한 날에는 한라산에서부터 성산일출봉까지 제주도 동쪽 지역의 오름들을 조망할 수 있어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오름이다.